

## 대중가요 작사가 반야월(半夜月) 작품 연구\*

장 유 정\*\*

### 차 례

- |                |                   |
|----------------|-------------------|
| 1. 머리말         | 4. 작품의 특징         |
| 2. 작사가 반야월의 생애 | 4.1. 광복 이전 작품의 특징 |
| 3. 작품의 전반적인 양상 | 4.2. 광복 이후 작품의 특징 |
|                | 5. 맺음말            |

### 국문초록

본고는 작사가 반야월의 생애를 살펴보고 그가 작사한 대중가요 가사를 수합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가사에서 나타난 특징을 고찰한 것이다. 광복 이전에 진방납이라는 예명을 사용하여 가수로 데뷔했던 반야월은, 주로 반야월이라는 예명으로는 광복 이전부터 광복 이후까지 상당한 수의 작품을 창작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중가요 작사가이다. 광복 이전에 작사한 작품이 약 14편에 불과한 것과 달리 광복 이후부터 2012년에 운명하기 전까지 반야월이 작사한 작품은 수천 곡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본고에서는 반야월이 광복 이후에 작사한 작품의 약 760여 곡의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8023052)

\*\* 단국대 교양기초교육원

작품 목록을 정리하고 그 중에서 가사가 있는 약 400여 곡의 작품을 중심으로 그 대체적인 경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반야월의 생애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반야월 작품의 전반적인 양상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4장에서는 반야월 작품을 광복 이전에 창작한 작품과 광복 이후에 창작한 작품으로 나누어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고찰하였다. 광복 이전에 창작한 작품은 크게 풍년을 주제로 한 작품, 이국성을 드러낸 작품, 방랑의식을 표출한 작품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풍년을 주제로 한 작품과 이국성을 드러낸 작품이 낭만적 경향을 보여준다면, 방랑의식을 표출한 작품은 사실적 경향을 드러냈다.

다음으로 광복 이후에 나온 작품은 낭만적 경향과 사실적 경향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았다. 낭만적 경향을 보여주는 작품은 크게 이국성, 회고주의, 사랑지상주의, 청춘예찬으로 나누어서 작품의 실제 모습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사실적 경향을 보여주는 작품은 실화를 노래로 만든 것과 세태를 반영한 작품으로 나누어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고찰하였다. 세태를 반영한 작품은 방랑의식과 결핍과 부재에서 비롯한 동경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반야월이 개사한 작품의 목록을 정리하고 그 작품이 원 작품과 어떻게 같고 다른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반야월이 특히 영화주제가를 많이 작사한 바, 영화주제가에서 드러나는 특징이 있는 지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반야월 작품을 위시해서 광복 이후에 나온 노래들의 정보를 정리하는 아카이브 구축 작업이 요청된다.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아카이브 구축 작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이에 대한 연구도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주제어 : 반야월, 진방남, 대중가요, 가사, 사실적 경향, 낭만적 경향

## 1. 머리말

<울고 넘는 박달재>, <단장의 미아리 고개>, <산장의 여인>, <무너진 사랑탑>, <아빠의 청춘>, <유정천리>, <소양강 처녀> 등은 모두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에게 애창되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대중가요이다. 그런데 이 노래들은 모두 반야월이 작사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토록 수많은 인기곡을 작사한 반야월(1917.8.1-2012.3.26)은 지난 70여 년 간 수천 곡을 창작한<sup>1)</sup> 한국 대중음악계의 대표적인 작사가이다.

본명이 박창오(朴昌吾)인 반야월은 경남 마산에서 출생했다. 1939년, 태평레코드사에서 주최하는 가요 콩쿠르에 입상한 그는 1939년에 <사막의 애상곡>(김영일 작사, 김교성 작곡, 진방남 노래, 태평 8659A, 1939)을 취입하면서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가수로 활동할 때 진방남(秦芳男)이라는 예명을 사용하였으며, 1940년에 취입한 <불효자는 읊니다>(김영일 작사, 이재호 작곡, 진방남 노래, 태평 8678A, 1940)가 크게 인기를 얻으면서 가수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이후, 그는 반야월이라는 예명으로 <넋두리 이십 년>, <꽃마차> 등을 시작으로 작사가로 활동하였다. 광복 이전부터 약 70여 년 동안 대중음악 작사에 매진했던 그는 1970년대까지를 통틀어 가장 많은 곡을 작사한 작사가라고도 한다.

본고에서는 반야월이 작사한 대중가요 가사를 중심으로 그 전반적인 양상을 알아보고, 광복 이전과 광복 이후에 가사의 경향이 어떻게 변모하였으며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작품을 일일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못할지라도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반야월이 작사한 작품들의 전반적인 특징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대중가요에 반영된 당대의 사회와 문화도 엿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 『동아일보』 1973년 3월 14일자에는 반야월이 작사한 작품이 오천 곡이 넘는다고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오천 곡의 목록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

이에 2장에서는 반야월의 생애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작품의 전반적인 양상을 알아본 후, 4장에서 구체적인 작품의 특징을 고찰하기로 한다. 가사를 위주로 논고를 작성하되, 음악 양식도 고려하여 음악 양식에 따라 가사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도 살펴보기로 한다.

## 2. 작사가 반야월의 생애<sup>2)</sup>

1917년 8월 1일, 경남 마산(마산부 원정(元町) 126번지, 현 마산합포구 중성동)에서 아버지 박일몽(朴一蒙), 어머니 이차해(李且海)의 큰 아들로 태어난 반야월은 진해에서 성장했다. 사립 진해농산학교의 모범생이었던 그는 어려서부터 노래를 잘했고 책읽기를 좋아했다. 당시 아버지는 정미소를 운영했는데, 아버지의 친구가 아버지의 재산을 착복하는 바람에 온 가족이 다시 마산으로 돌아와 힘들게 생활을 꾸려갔고, 반야월도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집안 살림에 도움을 주었다.

가수로 데뷔하기 전인 1937년도에서 1939년까지 반야월은 친척의 소개로 청주 양복점의 점원으로 일했다. 당시에도 노래를 좋아해서 밤낮으로 노래를 불렀고, 이런 그를 보고 주위에서는 ‘노래 잘하는 마산 총각’이라며 그를 대우해주었다. 친구의 권유로 1939년 7월, 김천에서 열린 전국가요콩쿠르에 친구와 함께 참여했다가 함께 출전한 친구 김을재는 예선에서 떨어지고 반야월은 결선까지 올랐다. 당시 심사위원은 <조선 타령>과 <고도의 정한>을 작곡한 전기현과 작사가 천아토였고,<sup>3)</sup> 태평음반회사의 문예부원들이 행사를 도왔다.

2) 반야월의 생애는 반야월, 『불효자는 읍니다』, 화원, 2005; 반야월, 『나의 삶, 나의 노래』, 선, 2001; 『TV 자서전-반야월 편』(2011년 9월 25일, 2011년 10월 2일, 2011년 10월 9일 방송)을 참조하였음을 밝혀 둔다.

3) 반야월의 회고에 따르면, 천아토의 본명은 천명철이고, 전기현은 때로 유일춘이라는 예명을 사용했다고 한다.(반야월, 앞의 책, 2005, 88쪽)

결선 진출자는 자유곡과 지정곡으로 나누어 두 곡을 불렀는데, 당시 지정곡은 채규엽의 <북국 오천 킬로>(박영호 작사, 무적인 작곡, 채규엽 노래, 1939)였다. 반야월은 지정곡에 이어 자유곡으로 <춘몽>(김목은 작사, 김용환 작곡, 김용환 노래, 1936)을 기타 반주에 맞춰서 불렀다. 대회에 나가기 전 날, 불이 나는 꿈을 꾸었던 반야월은 결국 이 대회에서 1등을 했다. 그런데 1등 발표와 함께 순사가 호루라기를 불었고, <춘몽>의 가사를 트집 잡아 반야월을 끌고 갔다. 순사는 반야월이 부른 노래 가사 중, “내 마음은 언제 피나”라는 대목을 들어 그를 문초했다. 겨우 풀려나기는 했으나, 반야월은 이때 무척이나 착잡했다고 회고했다.<sup>4)</sup>

결선에서 1등을 차지한 반야월은 태평 음반 회사에 2년 전속 계약으로 가수 생활을 시작했다. 1939년에 진방남(秦芳男)이라는 이름으로 <사막의 애상곡>(김영일 작사, 김교성 작곡, 진방남 노래, 1939)을 발표하여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사막의 애상곡>이 별 반응을 얻지 못한 것과 달리, 1940년에 그가 불렀던 <불효자는 읍니다>(김영일 작사, 이재호 작곡, 진방남 노래, 1940)는 당시 최고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여 그를 인기 가수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반야월이 일본에서 <불효자는 읍니다>를 녹음할 당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우는 바람에 당일 날 녹음을 못하고 그 다음 날 녹음을 했다. 작곡가 김교성은 울면 목이 잠긴다며 반야월을 달랬으나, 다음 날 노래를 녹음하면서 울음이 많이 섞여 버렸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어 상해와 만주에까지 음반이 팔렸다. <불효자는 읍니다>가 인기를 얻으면서 그의 월급이 40원에서 70원으로 올랐다고도 한다.

하지만 그는 일제 말에 군국가요를 작사하고 노래하였고, 이 때문에 2009년도에 친일인명 사전에 등재되기도 했다. 당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고 안 되고의 여부는 군국가요를 몇 곡 창작했느냐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군국가요를 세 곡 이상 창작하거나 부른 사람은 친일을 한

4) 위의 책, 90쪽.

사람이고 두 곡 이하면 괜찮다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에 유명한 창작자나 가수라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군국가요를 창작하거나 부를 수밖에 없던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곡수로 친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애초부터 한계를 노정하는 것이다. 물론 그가 군국가요를 작사하고 노래했던 것은 그의 가요 인생에 오점임에 분명하다. 그렇기에 반야월은 2010년 6월 9일에 자신이 군국가요를 작사했던 과거의 일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한편 당시에는 새로운 노래가 나오면 길 가던 사람들이 악기점 앞에 모여 새로 나온 음반의 가사지를 보면서 노래를 합창하곤 했다. 이들을 ‘거리의 합창단’이라 불렀는데, 반야월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래를 합창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이 났다고 한다. 광복 이전에 반야월은 옹골찬 창법으로 인기를 얻었으며 탕고, 만요, 민요에 이르기까지 갈래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노래를 소화했다. 기생들이 반야월을 자주 따라다녔고 자신들이 쓴 혈서를 그에게 보낼 정도로, 그의 인기는 대단했다.<sup>5)</sup> 1942년부터 ‘반야월’이라는 필명으로 작사를 한 작품으로는 <넋두리 이십 년>을 위시하여, 약 14편 정도를 찾을 수 있다.

해방 후에는 태평 레코드가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반야월은 1945년에 남대문악극단을 창설해서 악극단 운영을 했다. 반야월이 직접 대본을 써서 남대문악극단이 공연한 <오리정 사건>은 방자와 향단이가 하는 놀이를 희곡으로 꾸민 것이다. <오리정 사건> 이전에 방송 희곡 <허생원>(1948년)을 써서 입선한 적이 있었던 그는 <허생원>이 입선하는 것을 계기로 대본 쓰는 일에 자신감을 얻기도 했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기생 강명화<sup>6)</sup>를 모델로 해서 반야월이 창작한 <산홍아 너만 가고>도 인기를

5) 반야월은 하숙집에서 만난 윤경분과 결혼하여 해로였다.

6) 기생 강명화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 장병천과의 연애 중, 장병천 집안의 반대와 세간의 곱지 않은 시선에 괴로워하다, 장병천의 앞날에 장애물이 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1923년에 자살하였다. 이 사건이 당시 화제가 되면서 기생 강명화의 애기는 소설과 대중가요 등으로 만들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장유정, 「20세기 전반

얻었고, 극 속의 <세세년년>이란 주제기도 마찬가지로 인기를 얻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1.4후퇴 이후에 반야월은 고향인 마산에 정착하였다. 그는 1951년 마산방송국(HLKO)의 문예부장을 지냈고, 이 때 공연단을 만들어 군부대와 피난민을 위로하였다. 1950년대는 한국 영화가 성행했는데, 반야월은 1957년에 영화 <짚레꽃>의 주제를 작사하기도 했다. 발표하는 노래마다 히트를 시키면서 반야월은 1950, 60년대 대표적인 작사가로 자리를 잡았다. 남인수, 배호, 이미자, 하춘화 등이 반야월이 작사한 노래를 불러 당대에 인기를 얻었다.

그런가 하면 반야월은 작곡자 박시춘과 명콤비를 이루면서 ‘히트곡 제조기’로 불렸다. 박시춘이 영화사를 차리면서 반야월이 그 회사의 전속으로 주제를 만들었던 것이다. 반야월의 독주가 계속 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샘을 받았고, 반야월은 이때 필명을 여러 개 사용해서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려 했다 한다. 이때 반야월이 사용한 필명으로는 추미립, 박남포, 옥단춘, 고향초, 금동선, 백구몽, 허구, 남궁려 등이 있다. 아울러 반야월은 이재호와도 콤비를 이루면서 많은 노래를 작사하였다. 1957년에 월북 작사가의 노래가 금지되면서 반야월은 조명암 등의 월북 작사가 노래 100여 곡을 개사해서 자신의 예명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때는 주로 추미립이라는 예명을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반야월은 1961년에는 한국연예협회 분과장을 역임했고, 1964년에는 손목인, 조춘영 등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설립했다. 1970년대까지 활발하게 작사 활동을 했던 반야월은 2012년 3월 26일에 운명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반야월의 생애 연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7)</sup>

1917년 8월 1일 : 반야월(박창오) 출생

1939년 ‘전국가요콩쿠르 신인가수 선발대회’(태평레코드·조선일보사

---

기 기생 소재 대중가요의 노랫말 분석], 『근대 대중가요의 매체와 문화』, 소명출판, 2012, 346-386쪽을 참고할 수 있다.

7) 반야월의 생애연보는 반야월, 앞의 책, 2005, 909-910쪽에 상세하게 나와 있다.

공동 주최)에서 1등 당선, <사막의 애상곡>으로 데뷔

1940년 진방남이라는 이름으로 노래한 <불효자는 읍니다> 히트

1942년 반야월이라는 필명으로 작사 시작

1945년 ‘남대문 악극단’ 창설

1948년 방송 희곡 공모에서 <허생원> 입선

1951년 마산방송국 문예부장

1956년 대한레코드작가협회 창설위원 및 부회장

1960년 아세아음악학원 원장

1961년 한국연예협회 창작분과 초대, 2대 위원장

1962년 한국문화예술인단체총연합회 이사

1964년 한국 음악저작권협회 이사

1967년 한국예술윤리위원회 위원

1974년 한국가요반세기 작가동지회 창설 위원

1977년 반야월가요작가상 제정

1981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평의원의장

1998년 한국가요작가협회 원로원 의장

2004년 3월 5일 한국연예협회 가수 분과 특별위원

2005년 5월 12일 한국연예협회 가수 분과 거목회 고문

2012년 3월 26일 반야월(박창오) 별세

이상이 그의 생애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그가 작사한 작품의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 3. 작품의 전반적인 양상

반야월이 작사한 작품은 광복 이전과 광복 이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광복 이전에 작사한 작품으로는 약 14곡의 목록을 정리할 수 있다. 반야월은 1942년부터 작사를 시작했는데, 이때는 일제 말이었다. 반야월은 1942년부터 작사를 시작했는데, 이때는 일제 말이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던 1941년부터 일제는 검열을 강화시켰고, 미국과 영국의 음악은 적성국의 음악이라며 부르지도 듣지도 못하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전시 체제라는 것을 들어 대중가요 대신에 군국가요를 창작하게 하였다. 반야월은 일제 말의, 광복 이전 음반사의 암흑기에 작사를 시작했던 것이다. 광복 이전에 반야월이 작사하여 발매시킨 노래의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8)</sup>

표 1 &lt;광복 이전 반야월 작사 작품 목록&gt;

제목	작사자	작곡자	가수	음반회사	음반번호	발매연도
결전 태평양 <sup>9)</sup>	반야월	이재호	태성호, 태평합창단	태평	5024A	1942
국경선 보초병	반야월	이재호	백난아	태평	5031	1942
국경의 여인숙	반야월	김용환	이인권	태평	5086	1943
꽃마차	반야월	이재호	진방남	태평	5032	1942
넋두리 이십 년	반야월	김교성	진방남	태평	5032	1942
돈푼년 쌀푼년	반야월	김교성	진방남	태평	5034	1942
목탄차 여정	반야월	김교성	태성호	태평	5029	1942
삼천포 일야	반야월	김용환	진방남	태평		1943
새 고향 북경차	반야월	전기현	태성호	태평	5033	1942
열녀의 사랑	반야월	김교성	손영옥	태평		1943
용마차	반야월	이재호	진방남	태평	5066	1943
인풍루야 잘 있거라	반야월	이재호	진방남	태평		
일억총진군	반야월	이재호	진방남, 태평합창단	태평	5024B	1942
젊은 기관수	반야월	이재호	진방남	태평		1942

8) 일제강점기 음반 관련 자료를 모두 교차 조사했으나, 목록에서 아직까지 네 곡의 음반 번호는 확인할 수 없었다. 앞으로 다른 자료를 찾는 대로 음반 번호 등을 보강하기로 한다.

9) <결전 태평양>의 작사자와 관련해서, 『매일신보』 1942년 2월 6일, 『매일신보』

광복 이전에 작사한 작품으로는 14곡 정도의 목록을 정리할 수 있는데, 대체로 작곡은 이재호와 김교성이 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작곡자 이재호와 반야월(진방남), 백년설은 태평 회사 시절에 ‘태평 삼총사’라 불리기도 했다. 그리고 반야월이 작사한 곡을 노래한 가수로는 반야월(진방남) 자신을 비롯해서 백난아, 이인권, 태성호, 손영옥을 들 수 있다.

반야월이 광복 이전에 작사한 노래 중에서 가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꽃마차>, <넋두리 이십 년>, <돈푼년 쌀푼년>, <삼천포 일야>, <용마차>, <젊은 기관수>, <일억 총진군>이다. 가사의 내용을 보면, 기존의 신민요와 유사한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돈푼년 쌀푼년>이 있고, 이국의 풍경을 중국풍의 선율에 맞춰서 경쾌하게 그려낸 노래로 <용마차>와 <꽃마차>가 있다. <꽃마차>의 원래 가사 속에 나오는 ‘하얼빈’은 광복 이후에 ‘꽃서울’로 바뀌어서 많은 인기를 얻기도 했다.

목록 중에서 <결전 태평양>과 <일억 총진군>은 군국가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당시 군국가요에는 ‘국민가’, ‘개병가’, ‘애국가’, ‘정책가요’라는 곡종명이 붙었는데, 14곡 중에서 <결전 태평양>과 <일억 총진군>에 ‘국민가’라는 곡종명이 병기되어 있는 것이다. <결전 태평양>의 가사는 찾을 수 없었으나 ‘태평양 전쟁’에 호응하는 작품으로 추정된다. 총 4절로 이루어져 있는 <일억 총진군>은 “나아가다 결전이다 일어나 거라/ 간닌부쿠로(堪忍袋)<sup>10)</sup>의 줄은 터졌다/ 민족의 진군이다 총력전이다. 피 뛰는 일억일심(一億一心) 합성을 쳐라”<sup>11)</sup>라는 1절 가사에서부터

1942년 2월 7일, 『매일신보』 1942년 2월 8일 광고에는 <결전 태평양>의 작사자에 ‘문예부(文藝部)’라 적시되어 있다. 다만 이경호 선생님 소장 자료에는 <결전 태평양> 작사자가 ‘반야월’이라 적혀 있다.

10) 간닌부쿠로(堪忍袋)를 직역하면 ‘인내를 담은 주머니’라는 뜻으로, ‘인내를 담은 주머니의 줄이 끊어졌다’는 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경우에 쓰는 일본의 관용적 표현이다.

11) <일억 총진군> 가사는 다음과 같다.

1. 나아가다 결전이다 일어나거라/ 간닌부쿠로(堪忍袋)(인내를 담은 주머니)의

일제에 호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sup>12)</sup>

반야월은 진방남이라는 이름으로는 <불효자는 읍니다>처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노래는 물론, 당시에 많이 창작되고 향유되었던 방랑 의식을 드러낸 노래를 많이 불렀다. 실제로 그는 그러한 노래를 작사하기도 했는데, <삼천포 일야>나 <넋두리 이십 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광복 이후부터 그가 사망하기 전까지 작사한 작품은 몇 천 곡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이 수치는 박영호나 조명암처럼 재북(在北) 내지 월북(越北)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개사한 작품까지 포함시킨 것이다.<sup>13)</sup> 개사한 작품이 아닌 반야월 자신이 작사한 작품만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약 760여 곡의 작품 목록을 정리할 수 있었다. 760여 곡의 작품 목록 중

---

줄은 터졌다/ 민족의 진군이다 총력전이다/ 피 땀은 일억일심(一億一心) 함성을 쳐라

2. 싸움터 건너 자간 황군(黃軍) 장병아/ 총후(銃後)는 튼튼하다 걱정 마시오/ 한 사람 한 집안이 모다 결사대/ 아카이타스키(赤い標)에 피가 끓는다
  3. 울려라 히노마루(日の丸) 빛나는 국○/ 우리는 신의 나라 자손이란다/ 임금께 일사보국 바치는 목숨/ 무엇이 두려우랴 거리끼겠소
  4. 대동아 재건이다 앞장잡이다/ 역사는 아름답고 평화는 온다/ 민족의 대진군 아 발을 맞추자/ 승리다 대일본은 만세 만만세(『진방남 작품집』, 옛 가요 사랑 모임 유정천리 기획, 2013)
- 12) 현재까지 반야월이 작사한 것으로 알려진 군국가요가 수적으로 적고 그 가사는 한 곡만 찾을 수 있었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반야월이 작사한 군국가요만의 특징을 포착하기란 지금으로써는 불가능하다.
- 13) 반야월이 박영호나 조명암의 작품을 개사해서 재발매한 것에 대한 평가는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사를 통해서라도 월북 작가의 작품을 살려 대중들이 향유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나, 개사 과정에서 원 가사가 소실되고 훼손되면서 원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일이 어려워 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상 아직까지 어떤 작품을 어떻게 개사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자료의 보강과 정리, 그리고 분석을 통한 재평가 등이 요청된다. 일단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 상, 반야월의 개사 작품이 아닌 순수한 창작 작품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음을 밝혀둔다.

에서 『불효자는 읍니다』에 수록된 가사 등을 참고해 모은 가사가 약 400곡 정도이다. 완전한 것은 아니나, 400곡 정도의 작품으로도 반야월 가사의 대체적인 양상을 살펴보는 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사실상 광복 이후부터 1950년대와 1960년대 음반 정보가 아직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 심지어 작사가인 반야월 자신이 적시한 연도와 실제 음반 발매 연도가 다른 경우도 많았다. 일단 본고에서는 반야월이 기재한 연도를 기준으로 작품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불효자는 읍니다』에 수록된 가사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작품 경향을 살펴보려 했다. 반야월의 전반적인 작품 경향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400곡의 가사가 결코 적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실제 음반을 바탕으로 한 음반 정보 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sup>14)</sup>

#### 4. 작품의 특징

편의상 광복 이전과 광복 이후로 나누어서 반야월 작품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광복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음반 산업은 달라졌다. 광복을 맞이하면서 일본 대신에 우리나라가 음반 산업의 주체가 되어 새롭게 대중음악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던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우리나라는 다시 격동과 파란을 겪었다. 대중가요도 이러한 당대의 상황과 조응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였다. 반야월은 광복 이후에 더 활발하게 작사 활동을 했는데, 광복 이후 작품의 특징을 살펴보기에 앞서 광복 이전 작품의 특징부터 서술하기로 한다.

---

14) 대중가요 연구에 있어서 작품의 아카이브 정리가 시급하다. 그나마 오히려 광복 이전 작품은 나은 편이다. 하지만 광복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는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4.1. 광복 이전 작품의 특징

앞서 3장에서 목록을 제시했듯이, 광복 이전에 나온 반야월의 작품은 약 14곡이며, 발매연도가 1942년과 1943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sup>15)</sup> 이 중에서 가사를 찾을 수 있는 곡을 중심으로 그 작품의 특징을 보면, 먼저 <돈풍년 쌀풍년>은 당시 신민요의 대표적인 주제 중 하나였던 ‘풍년’을 주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6)</sup>

에 만경벌 황소가 우네 만경벌 황소가 우네  
쌀보리 사태가 나네 쌀보리 사태가 나네  
돈 풍년 쌀 풍년일세 농부야 렬렬 농부야 렬렬  
어허야 데헤로구나 상사디야  
우리네 농부들 노래하며 거듬질하세

에 금강산 백두산일세 금강산 백두산일세  
노다지 사태가 나네 노다지 사태가 나네  
금 풍년 은 풍년일세 모타가 빙빙 모타가 빙빙  
어허야 데헤로구나 상사디야  
우리네 광부들 노래하며 노다지 개케

에 영변에 약산 동대에 영변에 약산 동대에  
진달래 만발하였네 진달래 만발하였네  
꽃 풍년 임 풍년일세  
사랑이 둥둥 노래가 둥둥  
얼씨구 절씨구야 상사디야  
우리네 벗님아 노래하며 꽃구경 가세

- 
- 15) 본고의 작성을 위해, 찾을 수 있을 만큼 반야월 작품과 그 가사를 찾았으나 앞으로 작품을 더 발견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혀둔다.
- 16) 광복 이전 신민요는 크게 ‘충족’과 ‘결핍’을 드러낸 노래로 나뉘고, ‘충족 의식’은 다시 ‘국토 예찬’, ‘봄맞이’, ‘풍년맞이’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광복 이전 신민요에 나타나는 충족 의식의 세 가지 모습은 장유정, 『오빠는 풍각쟁이야-대중가요로 본 근대의 풍경-』, 민음in, 2006, 245-263쪽을 참고할 수 있다.

〈돈퐁년 쌀퐁년〉(신민요, 반야월 작사, 김교성 작곡, 진방남 노래, 태평 5034, 1942)

신민요라고 곡중명을 부기한 〈돈퐁년 쌀퐁년〉은 당대 신민요가 보여 주었던 특징을 그대로 계승해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한 것이나 반복을 활용해서 가사를 구성한 것, 그리고 전통적인 민요의 후렴구를 차용한 것이 그 증거이다. 1절에서는 농사와 관련된 내용, 2절에서는 광업과 관련된 내용, 마지막 3절에서는 임과 관련된 내용이 차례대로 흥겹게 전개되고 있다. 노래 가사에서 알 수 있듯이, 고통과 괴로움은 없고 오직 모든 것이 풍부하게 넘쳐나는 세상이 등장하고 있다. 돈과 쌀이 넘쳐나고 금과 은이 넘쳐나며, 사랑마저 충분한 세상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당대 여타 신민요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선취된 미래’를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돈퐁년 쌀퐁년〉은 여타 신민요는 물론이거니와 기존의 민요와 잡가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계승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부야 털털’, ‘모타가 빙빙’, ‘사랑이 둥둥’과 같은 구절을 반복하고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작품의 리듬감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어허야 데헤 로구나’와 ‘얼씨구 절씨구’도 기존의 민요와 잡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후렴을 차용한 것이다. 아울러 ‘상사디야’도 농부가에 등장하는 후렴의 일부로써, 〈돈퐁년 쌀퐁년〉이 기존의 민요와 잡가를 계승하였음을 알려준다.

한편 〈용마차〉와 〈꽃마차〉는 이국성을 드러낸 곡들이라 할 수 있다. 선율도 중국풍을 연상시키는 선율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광복 이후에 발매된 〈차이나 맘보〉 등과 궤를 같이하는 곡으로 볼 수 있다.<sup>17)</sup>

노래하자 하르빈(哈爾濱) 춤추는 하르빈/ 아카시아 숲속으로 꽃마차

17) 〈차이나 맘보〉에 대한 해석은 줄고, 「1950년대 대중가요의 이국성 고찰」, 『구비문학연구』 27집, 한국구비문학회, 2008, 7-12쪽을 참고할 수 있다.

는 달려간다

하늘은 오렌지색 꾸냥의 귀걸이는 한들한들/ 손풍금 소리 들려온다  
방울 소리 들린다

푸른 등잔 하르빈 꿈꾸는 하르빈 알곰삼삼 아가씨들 콧노래가 들려온다  
송화강 출렁출렁 숨 쉬는 밤하늘엔 별이 총총/ 색소폰 소리 들려온다  
호궁 소리 울린다

울퉁불퉁 하르빈 코코아 하르빈/ 뽀죽 신발 바둑길에 꽃양산이 물결친다  
이국의 아가씨야 내일의 희망 안고 웃어다오  
대정금(大正琴)<sup>18)</sup> 소리 들려온다 노래소리 들린다  
<꽃마차>(반야월 작사, 이재호 작곡, 진방남 노래, 태평 5032, 1942)

경쾌한 선율로 이루어진 <꽃마차>는 ‘하르빈’의 이국적인 정취를 드러낸 노래이다. 이국성(異國性: exoticism)을 드러낸 노래는 크게 이국정취(exotic mood)를 묘사한 노래와 이국정서(exotic emotion)를 드러낸 노래로 나눌 수 있다.<sup>19)</sup> 이국정취나 이국정서를 나타낸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이국적인 풍물을 상징하는 어휘를 사용하나, 내용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즉 이국정취를 나타낸 작품이 주로 다양하고도 다다한 이국적인 풍물을 드러내는 것 자체에 치중한다면, 이국정서를 지향하는 작품은 그러한 이국적인 풍물을 통해 정서의 감응까지 유도하는 것이다.

---

18) 대정금(大正琴: 타이쇼고토)은 두 줄의 현과 간단한 건반이 달린 일본 악기를 뜻한다. 하얼빈에서 일본 악기인 ‘대정금 소리가 들려온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얼빈에 침투된 일본의 문화를 엿볼 수 있다. 반야월이 이 노래를 작사할 때 얼마나 의식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표현을 통해 러일전쟁 당시 일본이 승전한 기억을 은연중에 상기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작품의 내용을 고려할 때, ‘대정금’은 단순히 이국적인 풍경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어휘로도 볼 수 있는 바, 앞으로 텍스트 이외의 자료를 참고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19) 대중가요에 나타나는 이국성의 정취와 분류는 줄고, 앞의 글, 2008을 참고할 수 있다.

<꽃마차>는 이국정서보다는 이국정취를 드러내는 데에 치중한 노래로 볼 수 있다. 꾸냥, 송화강, 하르빈, 이국의 아가씨 등을 가볍게 나열했다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실상 194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1940년 1월부터 7월까지 『매일신보』에 연재했다가 1941년에 박문서관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된 이효석의 장편소설 <벽공무한(碧空無限)>도 중국 하얼빈으로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본고에서 언급한 <꽃마차>와 같은 대중가요 가사에도 하얼빈이 종종 등장하는 것이다. 이는 당시 중국 진출의 야심을 드러냈던 일제의 관심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하얼빈이라는 지역이 러일전쟁 당시 일본이 전승했던 기억을 담지하고 있는 특별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꽃마차>에서도 보듯이, 이국정서가 아닌 이국정취를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대상을 희화화(戲畫化)시킴으로써 일제의 그런 야심은 오히려 노래에서 조롱된다고도 할 수 있다.<sup>20)</sup>

<꽃마차>는 전반적으로 흥겹고 경쾌하게 선율에 맞추어서 작품의 내용이 전개되고 한들한들, 알곰삼삼, 출렁출렁, 울퉁불퉁처럼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작품의 리듬감을 강화시키고 있다. 특히 청각적인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손풍금 소리, 방울 소리, 색소폰 소리, 호궁 소리, 대정금 소리, 노래 소리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 노래는 가볍고도 피상적으로 이국의 정취를 드러내어 즐거움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일제 말에 우리나라의 대중가요 제작 체제와 음반 유통 범위가 만주 지역으로까지 확장되면서 나타난 상업적 전략의 소산으로 볼 수 있다.

20) 특정 대중가요의 의미를 포착하는데 있어서 창작자의 창작 의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노래를 향유하는 대중의 의식이다. <꽃마차>의 선율과 가사를 볼 때, 당대인이 <꽃마차>를 향유하면서 일제의 야욕에 동조하고 이를 내면화하기 보다는 재미를 추구하면서 이러한 노래들을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향유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본고에서 이것이 일제에 대한 조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한 것은 당대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오늘날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렇게 볼 여지가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광복 이전에 나온 반야월의 작품 중 세 번째 경향으로는 세태를 반영하면서 방랑의식을 드러낸 것을 언급할 수 있다. <삼천포 일야>와 <넋두리 이십 년>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눈보라가 휘날리어 얼굴을 치는구나  
찬 땀에 흐르는 물 눈 녹음이 아니로다  
이 한밤 외진 산길 몰아치는 바람길에  
헤어진 옷자락이 떠는구나 어는구나

얼어붙은 옛 생각에 서글픈 옛 생각에  
절절히 사무치는 어리석은 옛 일들아  
무산령 고개 넘어 몇 천 리냐 몇 만 리냐  
끝없이 돌아 돌아 정처 없는 나그네야

울어 십 년 웃어 십 년 청춘이 애달파라  
넋두리 이십 년에 역사도 한없구나  
전봇줄 울어 울어 고향 소식 망망한데  
못 잇을 어머님의 주름살이 야속하오

<넋두리 이십 년>(반야월 작사, 김교성 작곡, 진방남 노래, 태평 KC5032, 1942년)

<넋두리 이십 년>은 당시 대중가요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방랑의식’을 드러낸 노래이다. 노래 속 화자는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헤매는 나그네인 것이다. 하지만 그의 방랑길은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찬 길이 아니라 서글픔과 눈물로 점철된 외로움과 절망의 길이다. 주지하다시피 일제강점기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고향을 떠나 헤매는 나그네들이 많았다. 그에 따라 이러한 세태를 반영한 대중가요도 다수 등장하였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방랑의식을 드러낸 노래가 많이 나온 것은 그런 시대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노래 속 화자도 고향을 떠나 무산령 고개 넘어 몇 천리 몇 만리를 20

년째 떠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랑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기에 그 비극성은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화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눈물을 흘리며 고향 소식을 기다리고 늙어가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뿐이다. 이처럼 <넋두리 이십 년>은 당시 대중가요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방랑의식’을 주제로 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40년대 방랑의식을 드러낸 노래가 기존에 있던 방랑물의 계승이 아닌 1930년대 후반 일본 대중가요의 경향 중 하나인 ‘도추모노(道中物)’의 영향으로 나온 것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도추모노는 주로 야쿠자 같은 떠돌이 인생의 의리·인정·유랑 등을 소재로 하는 일군의 작품들로, 제4·7음을 배제한 장조와 울동감이 가미된 2박자 리듬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음악적 특징이 당시 우리나라 대중가요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sup>21)</sup>

당시 대중가요가 일본 대중가요의 음악적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가사에 방랑의식이 나타난 모든 노래를 ‘도추모노’와의 관련 속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다. 일단 우리나라에는 일본과 같은 야쿠자 문화가 없다. 야쿠자 문화가 부재(不在)한 우리나라에서 야쿠자 문화와 연관 속에서 발생한 ‘도추모노’를 당시 우리나라 대중가요에 그대로 대입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다. 사실상 ‘방랑’은 우리나라에 대중가요가 등장했을 때부터 당시의 시대적 환경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소재였다. 그리고 1940년대 ‘방랑 의식’을 드러낸 노래는 일본 대중가요 중 ‘북방물(北方物)’의 자장 안에서 창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존에 절절하게 세태를 반영하던 ‘방랑물(放浪物)’이 추상적이고도 낭만적인 내용을 담지하는 내용으로 변하기도 했다.

21) 김창남 엮음, 『대중음악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12, 247쪽. 한편 음악적으로 47음을 배제한 장조와 2박자 리듬을 사용한 도추모노(道中物)는 특히 1950년대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얻었던 장조 트로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대인에게 이러한 노래가 단지 낭만적으로만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방랑’과 ‘유랑’은 그들의 일상이자 생존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넋두리 이십 년>은 함경북도 부령군과 회령군 사이에 있는 ‘무산령’이라는 실제 고개를 사용해서 작품의 구체성과 사실성을 확보하였다. 나그네와 방랑자가 넘쳐났던 시기에 나온 반야월의 <넋두리 이십 년>은 사실적 경향이 우세한 노래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복 이전에 반야월이 작사한 14편의 작품 목록을 정리할 수 있었고 이 중에서 약 7편의 가사를 찾을 수 있었다. 이 가사들은 크게 세 가지 경향을 드러냈다. 풍년을 주제로 한 작품, 이국성을 드러낸 작품, 방랑의식을 표현한 작품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풍년을 주제로 한 작품과 이국성을 드러낸 작품은 ‘낭만적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방랑의식’을 드러낸 작품은 ‘사실적 경향’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광복 이전에 반야월이 작사한 작품의 수가 적어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반야월의 작품들은 당대의 경향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낭만적 경향’의 작품은 주로 이국성, 회고주의, 그리고 상상의 세계를 지향하는 반면에 ‘사실적 경향’의 작품은 세대를 꿰뚫히게 반영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대중가요 가사가 이러한 낭만적 경향과 사실적 경향을 드러낸다. 그리고 시대나 그 배경에 따라 낭만적 경향과 사실적 경향을 드러낸 작품 중 어떤 한 경향의 작품이 우세하게 나타나거나 열세해지면서 포물선 그래프를 그려가기도 한다. 반야월의 가사에서도 이러한 낭만적 경향과 사실적 경향을 드러낸 작품을 찾을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낭만적 경향과 사실적 경향으로 나누어서 광복 이후에 발매된 작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 4.2. 광복 이후 작품의 특징

반야월의 작품을 위시한 대부분의 대중가요 가사는 두 가지 경향으로

크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낭만적 경향과 사실적 경향이 그것이다. 이는 나름대로의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있는 사실주의와 낭만주의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가사가 어느 쪽 경향에 더 가까운 지를 보고 낭만적 경향과 사실적 경향으로 나눈 것이다. 따라서 사실적 경향의 노래가 주로 세태를 반영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다면, 낭만적 경향의 노래는 환상과 상상의 세계를 묘사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열적인 자아의 해방, 국민적·지방적 전통으로의 복귀, 자연에 대한 사랑, 명상적 신비주의, 미적 회고주의, 이국성을 등을 통해 발현되는 정서를 표현한 가사는 ‘낭만적 경향’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sup>22)</sup> 그러면 먼저 낭만적 경향의 작품의 구체적인 모습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 4.2.1. 낭만적 경향의 작품

반야월의 작품에서 낭만적 경향을 드러낸 작품은 크게 이국성, 회고주의, 사랑지상주의, 그리고 청춘 예찬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이국성을 드러낸 작품으로는 <그리워라 나포리>, <나포리 연가>, <남국의 향수>, <사랑의 파리>, <스페인의 꿈>, <차이나 아가씨>, <태평양 항로>, <월남 소야곡>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노래들도 대체로 이국정서보다는 이국정취를 묘사하고 있다. 다만 광복 이전의 작품과 다른 것은, 광복 이후에 나온 노래에서 이국의 개념이 확장된 것을 들 수 있다. 광복 이전에는 만주나 상하이 등 아시아 지역이 이국으로 등장한다면, 광복 이후에는 시대가 변하고 6·25 이후 다양한 외국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도 이국으로 등장한 것이다.

당시 대중가요 중에는 반야월의 노래뿐만 아니라 이국의 정취를 묘사한 노래들이 대거 나왔다. 이는 6·25 이후에 다양한 나라를 접할 수 있

22) 필자는 1945년부터 1960년까지의 대중가요의 노래 가사에서 낭만적 경향과 사실적 경향이 시기별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 본 바 있다.(참고, 『한국 대중가요의 전개 양상 고찰-1945-1960년까지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51집, 한국문학회, 2009)

었던 시대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더해, 당시 한국 대중가요계 분위기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즉 이른바 자유당 시절에 국내 사정이 좋지 않고 대중가요 가사에 대한 검열이 심해지자 시국과 무관한 이국에 눈을 돌렸고, 이에 따라 이국성을 드러낸 노래가 상당수 등장했던 것이다. 반야월의 기록에 따르면, <나포리의 연가>도 나폴리가 좋아서 만들고 불렀다가보다는 국내 현실에 짜증난 마음을 잠깐 딴 곳으로 돌리고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해 만든 노래라 한다.<sup>23)</sup>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이국정서를 강하게 드러내기보다는 표면적으로 이국정취를 묘사한 노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스페인의 꿈>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청춘의 부기우기 정열의 부기우기/ 새빨간 드레스를 꽃처럼 날리며  
미치는 카스타넷 돌아가는 네온싸인/ 잔 들어 브라보 노래하자 춤을  
추자

황소 뿔과 싸움하는 승리의 날/ 그대 사랑 내 가슴에 열싸 안고 캄인  
축복 받는 오늘밤을 영원히 새우리라 부기 멜로디

즐거운 부기우기 희망의 부기우기/ 연분홍 부라자가 터질 것 같구나  
올어라 색세인코 쏟아져라 진주별아/ 다같이 브라보 마시어라 취하여라  
돈호세와 칼멘에 물결치는/ 가는 허리 쓸어안고 춤을 추자 캄인  
불꽃 타는 내 사랑을 영원히 빛내리라 부기 멜로디

<스페인의 꿈>(반야월 작사, 송운선 작곡, 박재란 노래, 1963년)<sup>24)</sup>

스페인의 정취를 묘사한 <스페인의 꿈>은 스페인의 풍경을 흥겹게 묘사하고 있다. 즉 스페인을 깊게 이해하기보다는 그 정취를 가볍게 묘사하는데 치중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가사도 ‘마시고 취하고 노래하고 춤추자’고 해서 전반적으로 흥겨움과 경쾌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아가

23) 반야월, 앞의 책, 2005, 563쪽.

24) 발매 정보와 연도는 모두 위의 책을 따랐음을 밝혀둔다.

고 있다. 이러한 노래들은 외래어도 빈번하게 사용하는데, <스페인의 꿈>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카스타넷(castanets), 네온싸인(neon sign), 브라보(bravo), 섹세인코<sup>25)</sup> 캄인(come in)과 같은 외래어는 이 노래의 이국정취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회고주의를 드러내는 노래로는 <백제의 밤>, <신라 천년>, <순국처녀 유관순>, <양귀비>, <울어라 진주 남강>, <이차돈의 죽음>, <황진이 사랑>, <님 없는 탄금대> 등을 들 수 있다. 주로 역사적인 인물이나 역사 속 과거의 왕국을 회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백제의 밤>과 <신라 천년>이 각각 백제와 신라를 회고한 작품이라면, <순국처녀 유관순>, <양귀비>, <이차돈의 죽음>, <황진이 사랑>은 역사 속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에 해당한다.

칠백년 부여 땅에 밤이 내린다/ 변함없이 흘러가는 님 없는 백마강  
별빛도 울며 새는 백제의 밤이여/ 달빛도 울며 새는 백제의 밤이여  
아 아 아 삼천궁녀 가신 곳이 어디냐 어디메냐

사자수 깊은 물에 밤이 내린다/ 어디에서 들려오는 구슬픈 옥피리  
대궐도 사라져 간 백제의 밤이여/ 영화도 사라져 간 백제의 밤이여  
아 아 아 낙화암에 물새들만 구슬피 우는구나

<백제의 밤>(반야월 작사, 박시춘 작곡, 도미 노래, 1962년)

회고주의는 현실의 불만과 불평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종종 사용되곤 한다. 그리고 이는 현실이 아닌 이미 사라져간 과거를 추억한다는 점에서 낭만적 경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회고주의를 드러낸 작품은 이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누구나 백제, 신라, 황진이, 유관순 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소재로 한 노래를 들으면서 대중은 친숙함을 느끼는 것

25) 반야월은 자신의 책에서 '섹세인코'가 새의 이름이라 하였으나, 정확하게 어떤 새인지 알 수 없다.

이다. 중요한 것은 회고주의를 드러낸 노래가 트로트의 토착화에 일조했다는 것이다. 트로트가 우리나라 역사와 향토 등을 소재로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토착화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백제의 밤>이 단순히 백제를 회고하는 것에서 그치고 있다면, <순국처녀 유관순>은 ‘유관순’에 대한 예찬을 통해 역사의식을 강조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말없이 흐르는 만화천 저 물결아/ 이 강산 순국 처녀 너도 알지  
독립만세 외치던 그 날/ 하늘땅도 따라서 외쳤었네  
겨레의 앞장서서 호령하던/ 아 대한의 딸 장하도다 유관순님

압박과 설움의 왜정의 모진 쳇죽/ 이 강산 순국 처녀 일어섰네  
쇠사슬이 끊어진 그 날/ 산천초목 따라서 춤을 쳤네  
겨레의 가슴마다 거울이 된/ 아 대한의 딸 거룩하다 유관순님

피 더운 가슴에 단 하나 그 소원은/ 이 강산 조국 땅에 자주 독립  
무궁화가 곱게 핀 오늘/ 두손 모아 명복을 빌고 빌어  
겨레의 가슴마다 사모치는/ 아 대한의 딸 빛나도다 유관순님  
<순국처녀 유관순>(반야월 작사, 전오승 작곡, 박재홍 노래, 1960년)

<순국처녀 유관순>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유관순’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내세워서 그녀를 예찬하고 있다. 사실상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역사 속의 인물을 현재에 호명했다는 것 자체가 ‘낭만적 경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과도한 영탄조와 유관순을 예찬하는 표현들은 이 작품의 ‘낭만적 경향’을 강화시킨다. 더 나아가 이 노래는 ‘유관순’이라는 인물을 통해 ‘애국심’을 환기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유관순과 ‘독립만세’, ‘순국’, ‘대한의 딸’ 등과 같은 표현을 중첩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애국심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낭만적 경향을 드러낸 작품으로는 ‘사랑지상주의’를 표방한 작품을 들 수 있다. 사실상 사랑만이 전부이고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일종의 ‘낭만적 신화’라고 할 수 있다. 계절이 변하듯 사랑이 변하는 것은 사랑의 속성이기도 하다. 그래서 소설 <홍루몽>에서는 “세상의 모든 좋은 일이면 끝나는 거고, 끝나면 좋은 거다”라고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영원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랑을 이상화’<sup>26)</sup>시키는 것이다. 반야월의 작품 중에서 사랑의 이상화 내지 사랑지상주의를 드러낸 작품으로는 <님께서 부르시면>, <사랑의 기원>, <사랑> 등을 들 수 있다.

언제나 내 사랑이 되어 주오/ 영원히 내 사랑이 되어 주오  
비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쳐도/ 그리운 그대여 나의 사랑이여  
변치말자 했지 맹세했지 하늘이 무너져도/ 영원히 내 사랑이 되어 주오

언제나 내 사랑이 되어 주오/ 영원히 내 가슴에 안겨 주오  
등불 없는 바다도 달 없는 사막도/ 그리운 그대여 나의 사랑이여  
걸어가자 했지 맹세했지 상전이 벽해 되도/ 영원히 내 가슴에 안겨  
주오

<사랑의 기원>(반야월 작사, 김호길 작곡, 남인수 노래, 1961년)

<사랑의 기원>은 전형적인 사랑지상주의를 보여주는 노래에 해당한다. 종종 낭만적으로 묘사되는 사랑은 인간 삶의 일부이므로 현실이고 일상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때로 변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만적인 사랑의 신화에서 사랑은 영원불변한 것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화자는 사랑을 맹세하고 변치 않는 마음을 약속한다. <사랑의 기원>에서도 마찬가지다. 화자는 입에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영원히 나의 사랑이 되어 달라’고 말한다. 이처럼 영원한

26) 사랑의 이상화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사랑하면 죽는다』(마르셀라 이아콥 지음, 홍은주 옮김, 세계사, 2006)를 참고할 수 있다.



사랑을 맹세하는 것은 낭만적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마지막으로 청춘을 예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작품도 낭만적 경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청춘도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점에서 결코 영원할 수 없다. 게다가 청춘을 지나온 사람들은 알 것이다. 청춘이라는 것이 언제나 장밋빛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오히려 그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다는 점에서 청춘은 불투명성과 불완전성으로 가득 찬 인생의 한때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춘은 행복과 기쁨만이 가득찬 시기로 그려지기도 한다. 반야월의 작품 중에서 청춘을 예찬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작품으로는 <청춘 브라보>, <청춘 만세>, <청춘 맘보>, <청춘 보트>, <청춘 요트>, <청춘 시절>, <청춘 하이킹>, <행복의 일요일> 등을 들 수 있다.

앞산이 부른다 뒷산이 부른다/ 산토끼가 낮꿈 꾸는 산맥을 타고 가자  
하늘에는 헬기가 부붕붕 날아간다/ 야호 야호 야호 야호 대지의 청춘  
이다  
자연에 살리라 희망의 메아리/ 청춘 하이킹

앞강이 흐른다 뒷강이 흐른다/단풍잎이 곱게 물든 계곡을 따라 가자  
캔맥주를 단숨에 마시면 기분이다/ 야호 야호 야호 야호 대지의 사랑  
이다  
내일에 살리라 인생의 메아리/ 청춘 하이킹  
<청춘 하이킹>(반야월 작사, 나화랑 작곡, 박철로 노래, 1970년)

<청춘 하이킹>도 청춘의 기쁘고 즐거운 한때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야호’라는 의성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작품의 리듬감을 강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작품에 경쾌함을 더하고 있다. <청춘 하이킹>에서 젊은 날의 고뇌와 고민은 드러나지 않는다. 하이킹을 떠난 청춘의 기쁨과 희망만이 가득 차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춘 하이킹>은 청춘을 낭만적이고도 피상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낭만적 경향을 드러낸 작품이라

고 할 수 있다.

#### 4.2.2. 사실적 경향의 작품

반야월의 작품 중에서 사실적 경향을 드러내는 작품은 대체로 세태를 반영하는 것에 치중하는데, 이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과 방랑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실화를 노래로 만든 것으로는 <단장의 미아리 고개>, <사백 환의 인생 비극>, <사월의 깃발>, 27) <오 이 나라 나이팅겔 이효정님>, <겨레의 영광>, <두형아>, <두 형이를 돌려줘요> 등을 들 수 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는 반야월 자신이 한국전쟁 당시에 자신의 딸 ‘수라’를 잃은 실제 사건을 노래로 만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고 반야월은 마산에 내려와 마산 방송국 문예부 책임자로 있으면서 동료들과 콩쿠르 준비를 하느라 집에는 쌀가마니만 팔아놓고 집을 비우곤 했다. 당시 아내는 미처 서울을 빠져 나오지 못했는데, 9·28 수복 후에 서울에 올라가서 아내를 만난 반야월은 청천벽력의 소리를 들었다. 5살짜리 딸 수라를 업고 화약이 터지는 미아리 고개를 넘던 중 어린 수라가 죽었다는 얘기였다. 아내는 죽은 아이를 이불에 싸서 호미로 땅을 파고 거기에

27) 가요계에서는 4.19를 주제로 한 <4·19행진곡>(강남풍 작사, 김부해 작곡, 박재홍·김지녀·박정심·안정애 노래), <남원 땅에 잠들었네>(차경철 작사, 한복남 작곡, 손인호 노래) 등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 중 <4월의 깃발>이 가장 많이 불렸다. 참고로 <사월의 깃발> 가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4월의 깃발이여 잊지 못할 그날이여/ 하늘이 무너져라 외치던 민주 주권/ 그 주권 찾은 날에 그대들은 가셨나니/ 입자 없는 책가방을 가슴에 고이 안고/ 흘리는 눈물 속에 어린 넋을 잠재우리
2. 4월의 불길이여 피에 젖은 꽃송이여/ 빈 주먹 빈손으로 쏟아져 나온 교문/ 어른이 못한 일을 그대들은 하였나니/ 민주 대한 새 터전에 초석된 어린 영웅/ 조국의 품안에서 고이고이 잠드소서
3. 4월의 태양이여 뭉쳐진 대열이여/ 양처럼 순한 마음 진리는 명령되어/ 거룩한 더운 피를 그대들은 흘렸나니/ 역사 위에 수를 놓은 찬란한 어린 선열/ 조국의 별이 되어 길이길이 빛나소서

<4월의 깃발>(반야월 작사, 박시춘 작곡, 남인수 노래, 1962년)

묻었는데, 깊게 묻지도 못했다. 그 얘기를 듣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만든 곡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였다.<sup>28)</sup> 이러한 노래는 6·25 전쟁이 아니었으면 결코 나올 수 없던 노래라는 점에서 세태를 반영한 사실적 경향의 노래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백 환의 인생 비극>은 1960년 3월에 부산 국제고무공장에서 화재가 나서 60여 명의 여공이 사망한 것을 노래로 만든 것이다. 당시 그들의 일당이 400환이어서 <사백 환의 인생 비극>이란 제목을 붙인 것이다. 그리고 <사월의 깃발>은 1960년 4·19 때 희생당한 어린 학생들의 넋을 추모하는 노래이고, <오 이 나라 나이팅겔 이효정>은 이효정이라는 실제 간호사를 예찬하는 노래이며, <겨레의 영광>은 5·16 군사정변을 기념하여 지은 노래이다.

마지막으로 <두형이를 돌려줘요>와 <두형아>는 1963년에 실종된 ‘두형’이란 아이를 찾기 위해서 벌였던 ‘두형이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었던 노래에 해당한다. 동요 <산토끼>를 샘플링한 <두형이를 돌려줘요>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두형아 두형아 어디에 있느냐/ 강충강충 뛰면서 누구랑 놀겠지  
여기도 두형이 저기도 두형이/ 서울 부산에도 두메산골에도 두형이  
어른도 아이들도 두형이/ 두형이를 찾는다 두형아 두형아 두형아

(대사) 두형아! 울지마라 응? 착한 애기지.

울면 바보야.

아저씨 아줌마 말 잘 듣고

엄마 아빠 보고 싶거든

네가 잘 부르던 노래 있잖아? 응!

기타부기 말아야.

두형아 두형아 어디서 노느냐/ 기차놀이 하면서 누구랑 놀겠지

28) 박성서, 『한국전쟁과 대중가요, 기록과 증언』, 책이있는풍경, 2010, 116-117쪽.

아빠도 두형이 엄마도 두형이/ 대구 광주에도 방방곡곡에도 두형이  
낯모른 사람들도 두형이/ 두형이를 찾는다 두형아 두형아 두형아  
<두형아>(반야월 작사, 라음파 작곡, 남상규·아세아합창단 노래,  
1963년)

1962년 9월에 서울 마부구(현재 마포구) 공덕동에 살던 조두형 군(당시 4세, 1959년 생)이 실종되었다. 두형이가 길을 잃은 줄 알고 미아 신고를 한 조두형의 부모는 신문에 후사금 2만 원을 걸고 광고를 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돈을 달라는 협박장이 조두형의 집에 도착하였고, 돈 때문에 4살짜리 아이를 유괴했다는 것이 당시 사회에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각종 언론을 포함한 많은 단체들이 두형이를 찾기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을 벌였다. 이러한 운동이 가요계에까지 번져서 <두형이를 돌려줘요>와 <두형아>와 같은 노래가 나왔던 것이다. 몇 년 동안 신문에 두형이와 관련된 기사가 실리고 대통령까지 대국민 담화를 하였으나, 끝내 두형이의 행방과 생사는 알 수 없었다.

이처럼 세태를 반영한 노래들이 사실적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노래라면, ‘방랑의식’을 드러낸 노래도 사실적 경향을 보여주는 노래라 할 수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산업화에 따라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이촌향도(離村向都)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고향을 떠나 타향을 헤매는 많은 나그네들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농촌을 떠나 도시로 왔다고 해서 그들에게 성공과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다. 고향을 떠나 방황하는 나그네에게 있어 현실은 녹녹치 않았던 것이다. 그 때문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가 광복 이전과 마찬가지로 많이 등장하였다. 현실이 어렵고 고달플수록 유년의 평화로운 한때를 떠오르게 하는 고향과 부모님이 그리워지는 것이다. 이러한 노래들은 대체로 임의 부재에서 비롯한 입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물론 고향을 소재로 한 노래가 모두 사실적 경향을 드러낸다고 보기

는 어려울 것이다. 때로 고향을 낭만적으로 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사만 놓고 볼 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한 노래는 당시 고향을 떠나 타향으로 가야했던 사람들의 일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명이나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서 노래에서 ‘사실적인 경향’이 우세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반야월이 작사한 노래 중 ‘고향’을 소재로 한 노래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거라 슬픔이여>, <가는 봄 오는 봄>, <고향역>, <고향 열차>, <고향의 달>, <고향의 자장가>, <고향친구>, <귀향>, <내 고향 마산항>, <눈물의 목포항>, <돌아가자 하동 포구>, <무명선>, <방랑의 처녀>, <보일 듯이 보일 듯이>, <석류꽃 피는 고향>, <여수 야화>, <외나무 다리>, <울리는 경부선>, <초가 고향>, <한 송이 물망초>, <고향가는 급행 열차>, <고향달>, <고향의 모정>, <고향 포구 님 포구>, <그리운 초가 고향>, <나루터 고향>, <내 고향 인천항> <눈물의 목포항구>, <부산 아리랑>, <어머님의 얼굴을 어이 대할까>, <추자도 처녀> 등이 모두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노래가 모두 사실적 경향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고향을 이상적인 공간으로 묘사할 때 고향은 상상과 환상의 공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위에 제시한 작품들은 대체로 타향살이의 고달픔을 이겨내려는 방편으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고향은 부산, 목포 항구, 인천, 마산, 목포 등으로 구체적인 공간이며, 고향은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으로 그려진다. 따라서 적어도 반야월이 작사한 고향 관련 노래는 ‘사실적 경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삼등인생>, <실업자 인생>, <아이 속상해>, <대관령 길손>, <모국이여 안녕>, <모녀비곡>, <밀양에 우는 여인>, <달뜨는 고아원> 등도 구체적인 실화를 담은 노래는 아닐지라도 당시의 세태를 반영하면서 사실적 경향을 드러낸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조각달이 걸려 있는 남산 마루턱/ 부모 잃은 어린 것들 잠든 고아원  
배고프면 빵을 주고 울며 코 흘리면 씻어주는  
마음 좋은 아줌마가 아줌마가 너의 엄마다  
울지 말고 잘 자라라 착한 아가야

거리거리 울며 불며 헤매어 봐도/ 더운 손길 잡아주는 사람 없더나  
보채면은 달래주고 몸이 아프면은 약을 쓰는  
안경 쓰신 아저씨가 아저씨가 너의 아빠다  
울지 말고 공부하자 착한 아가야

<달뜨는 고아원>(반야월 작사, 이봉룡 작곡, 박재홍 노래, 은방울 노래, 1960년)

6·25 전쟁 이후에 수많은 전쟁고아가 출현하였다. <달뜨는 고아원>은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면서 나온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이 노래는 남산 마루턱에 있는 고아원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한국 전쟁과 전쟁고아가 아니었다면 <달뜨는 고아원>과 같은 노래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노래는 사실적 경향을 보여주는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반야월의 작품은 낭만적 경향과 사실적 경향으로 나누어서 그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반야월이 작사한 400여 곡의 작품은 대체로 둘 중 어느 한 경향을 우세하게 보여주었다. 기존 노래와의 연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낭만적 경향을 드러낸 노래는 그 표현 방법은 달라도 ‘사랑’과 ‘청춘’을 예찬한다는 것 자체에서 광복 이전에 나온 대중가요의 한 경향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사실적 경향을 보여주는 노래는 세태를 반영하면서 기존 대중가요와는 내용과 표현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즉 6.25 전쟁과 관련된 대중가요가 나오고 산업화로 인한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에서 비롯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는 가사들이 달라진 세태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5. 맺음말

이상으로 반야월의 작품 경향을 살펴보았다. 광복 이전에 진방남이라는 예명을 사용하여 가수로 데뷔했던 반야월은, 주로 반야월이라는 예명으로는 광복 이전부터 광복 이후까지 상당한 수의 작품을 창작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중가요 작사가이다. 광복 이전에 작사한 작품이 약 14편에 불과한 것과 달리 광복 이후부터 2012년에 운명하기 전까지 반야월이 작사한 작품은 수천 곡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본고에서는 반야월이 광복 이후에 작사한 작품의 약 760여 곡의 작품 목록을 정리하고 그 중에서 가사가 있는 약 400여 곡의 작품을 중심으로 그 대체적인 경향을 살펴보려고 하였다.<sup>29)</sup>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반야월의 생애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반야월 작품의 전반적인 양상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4장에서는 반야월 작품을 광복 이전에 창작한 작품과 광복 이후에 창작한 작품으로 나누어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고찰하였다. 광복 이전에 창작한 작품은 크게 풍년을 주제로 한 작품, 이국성을 드러낸 작품, 방랑의식을 표출한 작품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풍년을 주제로 한 작품과 이국성을 드러낸 작품이 낭만적 경향을 보여준다면, 방랑의식을 표출한 작품은 사실적 경향을 드러냈다.

다음으로 광복 이후에 나온 작품은 낭만적 경향과 사실적 경향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았다. 반야월이 작사한 400여 곡의 작품은 대체로 낭만적 경향을 보여주는 작품과 사실적 경향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낭만적 경향을 보여주는 작품은 크게 이국성, 회고주의, 사랑지상주의, 청춘예찬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사실적 경향을 보여주는 작품은 실화를 노래로 만든 것과 세태

29) 지면의 부족으로 필자가 정리한 반야월 작품 목록은 본고에 제시할 수 없었음을 밝혀둔다.

를 반영한 작품으로 나누어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고찰하였다. 세대를 반영한 작품은 방랑의식과 결핍과 부재에서 비롯한 동경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반야월이 개사한 작품의 목록을 정리하고 그 작품이 원 작품과 어떻게 같고 다른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반야월이 특히 영화주제를 많이 작사한 바, 영화주제가에서 드러나는 특징이 있는 지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반야월 작품을 위시해서 광복 이후에 나온 노래들의 정보를 정리하는 아카이브 구축 작업이 요청된다.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아카이브 구축 작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이에 대한 연구도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지금까지 반야월의 작품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고가 앞으로 반야월 작품에 대한 깊은 연구와 그를 위시한 대중가요 작사가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김창남 엮음, 『대중음악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12, 1-376쪽.
- 마르셀라 이아콥 지음, 홍은주 옮김, 『사랑하면 죽는다』, 세계사, 2006, 1-207쪽.
- 박성서, 『한국전쟁과 대중가요, 기록과 증언』, 책이있는풍경, 2010, 1-351쪽.
- 반야월, 『불효자는 옵니다』, 화원, 2005, 1-913쪽.
- 반야월, 『나의 삶, 나의 노래』, 선, 2001, 1-346쪽.
- 장유정, 『오빠는 풍각쟁이야-대중가요로 본 근대의 풍경-』, 민음in, 2006, 1-433쪽.
- 장유정, 「20세기 전반기 기생 소재 대중가요의 노랫말 분석」, 『근대 대중가요의 매체와 문화』, 소명출판, 2012, 346-386쪽.
- 장유정, 「1950년대 대중가요의 이국성 고찰」, 『구비문학연구』 27집, 한국구비문학회, 2008, 311-339쪽.
- 장유정, 「한국 대중가요의 전개 양상 고찰-1945-1960년까지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51집, 한국문학회, 2009, 205-234쪽.
- 『TV 자서전-반야월 편』(KBS, 2011년 9월 25일, 2011년 10월 2일, 2011년 10월 9일 방송)

<Abstract>

## A Study on Ban, Yawol's Popular Song Lyrics

Zhang, Eujeong\*

This paper examined lyricist, Ban, Yawol's life and his popular songs. First of all, His works are collected and are compiled a database. Ban, Yawol who debuted as a singer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as a representative Korean popular songs's lyricist. Up to now, his works is estimated at thousands of songs. In this paper, about 760 list of works were filled in and about 400 lyrics are examined.

Specifically, Ban, Yawol's lyrics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re divides into three parts: First, works on the subject of good harvest, Second, works exposed to exoticism, Last, Works express a sense of wandering. Among them, Fist and the Second shows the romantic trend. On the other hand, the last reflects realistic trend.

Next, the works after 1945 are divided into two: the works shows the romantic trend are split into exoticism, retrospective attention, love supremacy, and ode to youth again. Finally, the works shows the realistic trend are divided into songs are made on a true story and works reflects the social conditions. In addition, the works reflects the social conditions are shown the vagabondism and longing originated with absence and dearth of something.

---

\* Dankook University

Key Words : Ban, Yawol, Jin, Bangnam, Popular song, Lyrics,  
Realistic trend, Romantic trend

■ 논문접수 : 2013년 6월 30일

■ 심사완료 : 2013년 7월 20일

■ 게재확정 : 2013년 8월 5일

